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이번 기도 편지에는 2026년 각 사역에 주신 사명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려합니다.

<갈릴리 교회 사명과 기도제목>



사명: 방치된 어린이 전도 사역

7명의 성도님만 남았던 갈릴리 교회가 이제는 매주 8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넘어 이 산골 지역을 향한 사명, 방치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업을 도울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식사만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을 넘어서 토요일에도 식사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돕는 일들을 사명으로 시작합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처음 온 아이가 얼굴색이 다른 저를 처음 보고 우는 모습입니다. :)



<벤엘교회 사명과 기도제목>



사명: 선교적 교회 공동체 세움

벤엘교회는 개척한지 8개월이 지나갑니다. 20-3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진에 나오는 10명 정도 코어 그룹이 몸으로 뛰며 교회 공동체를 기도하며 세워갑니다. 받은 사명은 지금 30명 정도 수용하는 양철 교회를 넘어서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직접 교회의 터가 될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땅을 파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하여 제가 대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삽질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마 제가 실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듯합니다. 십대 아이들이나 70대 넘으신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힘도 세고 일을 잘하십니다. 2026년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길 함께 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물, 가축, 장학 사역, M 사역>



사명: 복음을 위한 섬김

우물, 가축, 장학 사역 모두 물질이 들어가는 사역들입니다. 복음 보다 물질이 앞서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갈릴리, 벤엘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전초 기지가 되어 소말리족 더 나아가 소말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아직 자립은 안되었지만 분기별 제게 감사표시로 살아 있는 닭 한 마리를 주십니다. 여전히 닭을 안는 것도 어색하지만 사랑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가정의 사명>

사랑하는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받은 어려움을 넘어서 보고 체험한 선교적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 길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